

SOCI 282
Social Innovation and Creativity
사회혁신과 창의성

공동체와 협력:
기후위기, 재난, 팬데믹에서 함께 살아남기

김수한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12/6/2022

Chicago Sun-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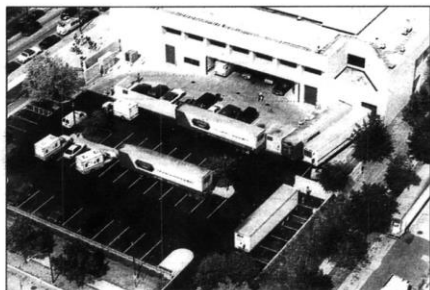
35¢

COOLER Pages 2, 40

MONDAY, JULY 17, 1995

Late Sports Final

HEAT TOLL COULD HIT 300



Robert A. Dunn Sun-Times photos
LEFT: Refrigerated trucks serve as makeshift morgues for heat wave victims outside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Sunday. ABOVE: Workers place another body in a refrigerated truck.

116 Die; Few Using City Cooling Centers

By ALEX RODRIGUEZ
and MARK BROWN
Times Staff

What began as an insufferably unpleasant turn in summer weather has become one of Chicago's worst disasters, claiming 116 lives as of Sunday.
The toll from the deadly heat wave could reach 300 in Cook County, Medical Examiner Edmund Donoghue said Sunday.
Most of the deaths involved elderly people, many of whom had heart trouble or other chronic health problems. But the common thread, Donoghue said, was "air conditioning, or lack of it."

"When temperatures get up into the hundreds, you have to get into air conditioning," Donoghue said. "The body is not used to it."
Many of those who died had body temperatures of 107 or 108—deadly levels reached after five days of stifling, 80-degree-plus weather, he said.
"The climbing death toll raised questions about what the city can do to brace residents for dangerous weather," Mayor Daley defended his administration's plans for dealing with the heat wave. Turn to Page 8

RELIEF ON THE WAY TODAY'S FORECAST

Partly sunny, breezy and a bit cooler and less humid today with a high of 85 and a low in the 60s.
Tuesday and Wednesday will be even cooler, with highs near 80.

COVERAGE,
PAGES 9-11

County Morgue Trying to Cope

By TANAKA KERRELL
Times Writer

A grim procession of grieving family members, masked technicians and police wagons bearing bodies swarmed Cook County morgue Sunday in the hot, dusty wind.
The heat wave of '95 left a trail of dead throughout the city. And most of the victims landed at 2121 W. Harrison.
The Cook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conducted a record 170 autopsies between 8 a.m. Friday and 5 p.m. Sunday. The morgue's 222 bays were full Sunday, and seven refrigerated tractor-trailers Turn to P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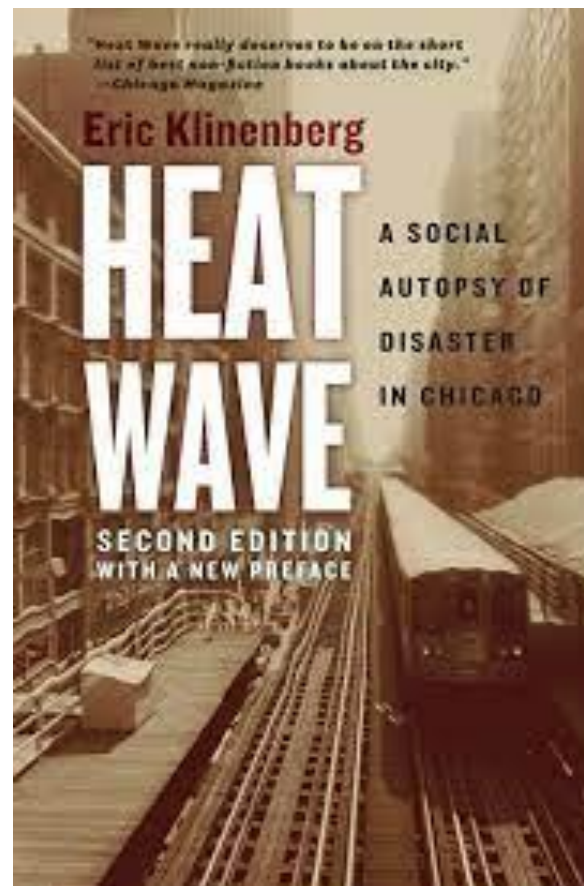
Ford's New Spin On the Taurus
AUTOTIMES

IRAQ FREES 2 AMERIC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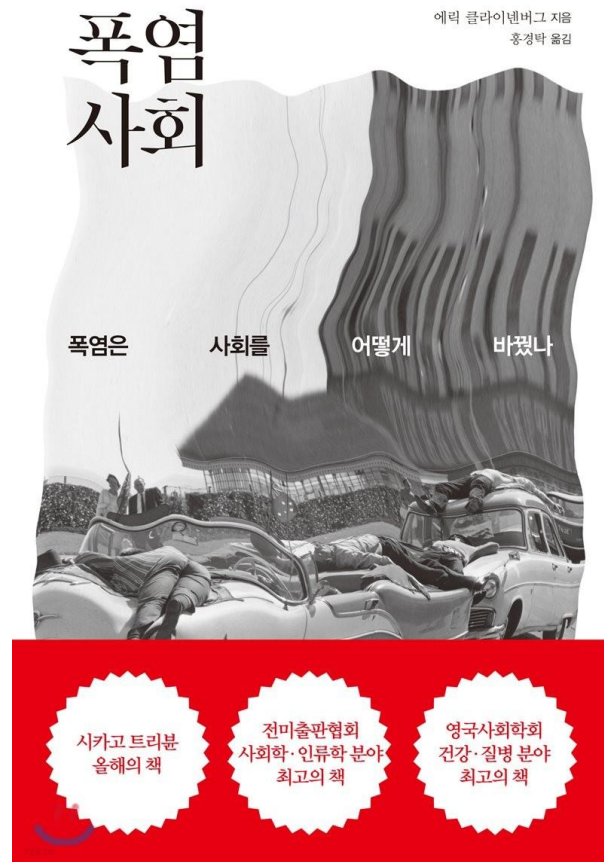
Page 3

CUBS BEAT CINCINNATI 7-5

Page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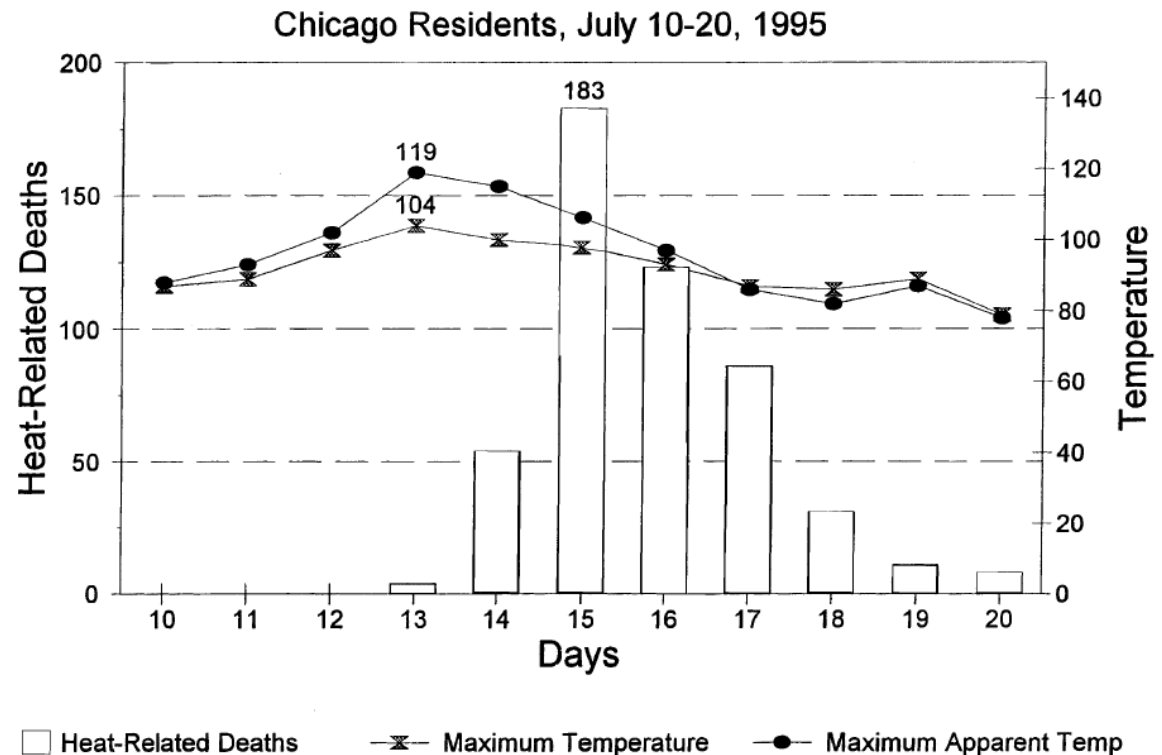


Eric Klinenberg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ublic Knowledge at New York University.

1995 Chicago Heat Wave



Chicago's daily low and high temperatures in 1995:

- July 11: 73–90 °F (23–32 °C)
- July 12: 76–98 °F (24–37 °C)
- July 13: 81–106 °F (27–41 °C)
- July 14: 84–102 °F (29–39 °C)
- July 15: 77–99 °F (25–37 °C)
- July 16: 76–94 °F (24–34 °C)
- July 17: 73–89 °F (23–32 °C)

739 heat-related deaths

Figure 1. Heat-related deaths and temperature.
[Source: Steven Whitman, Chicago Department of Health.]

1995 Chicago Heat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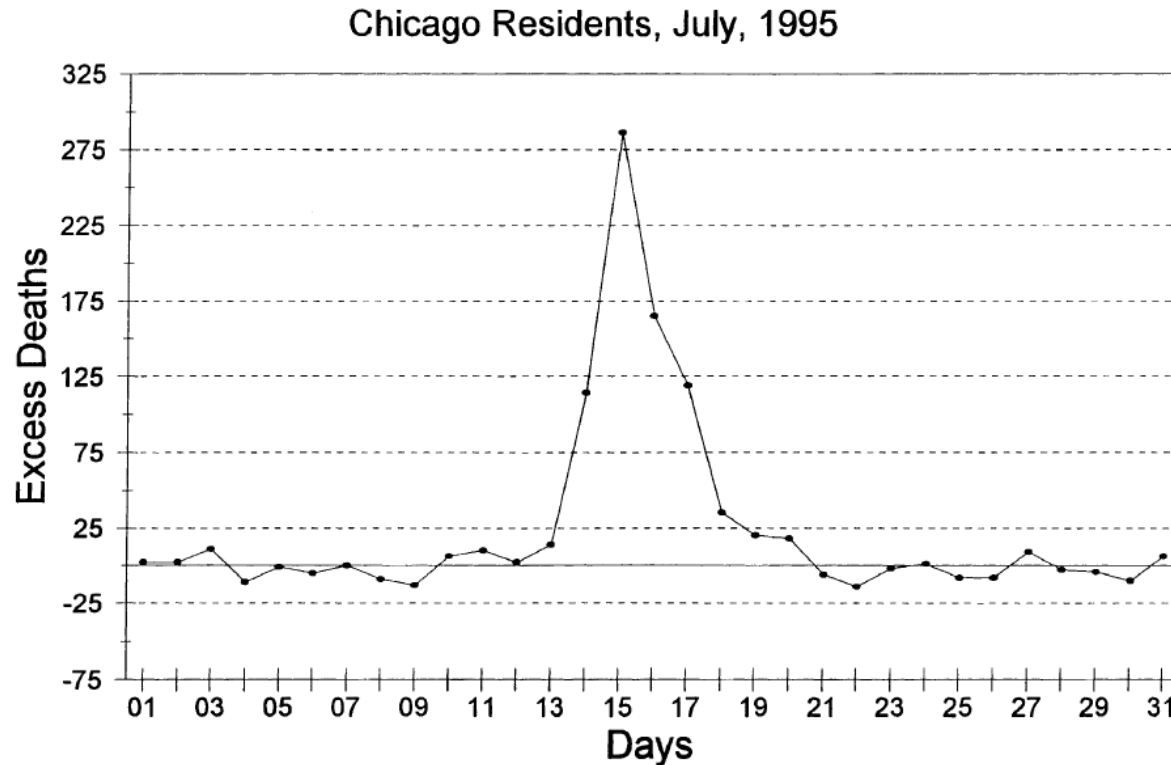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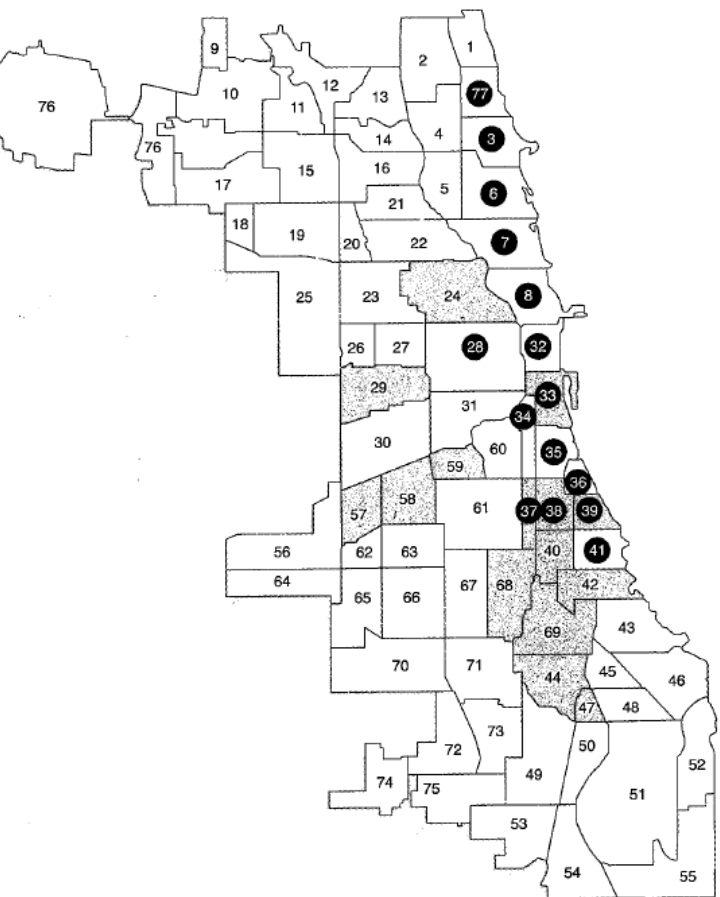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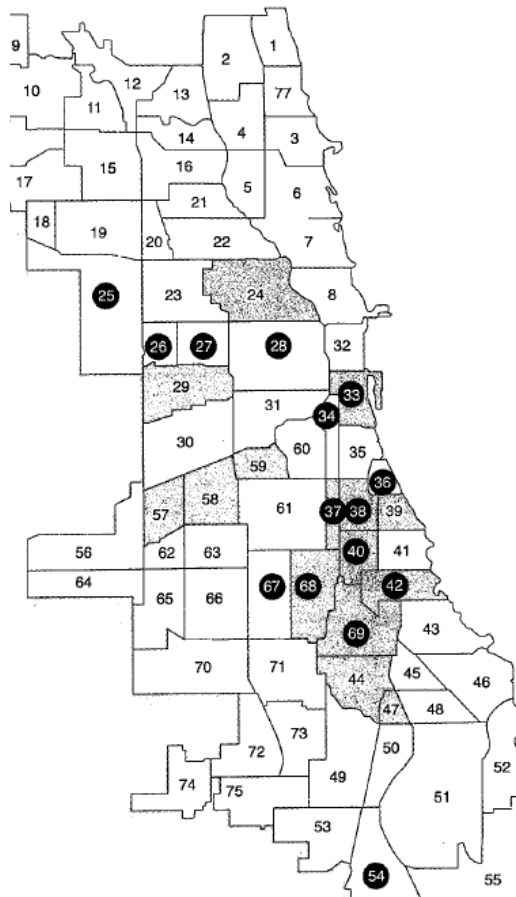
Figure 2. Estimated excess mortality.

[Source: Steven Whitman, Chicago Department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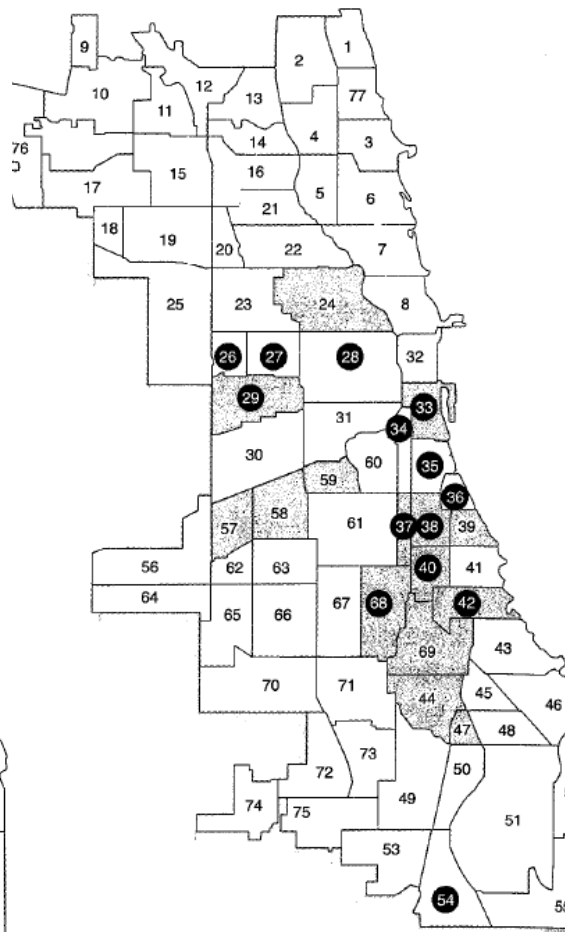
739 heat-related deaths in Chicago over a period of five days 5



독거노인



범죄



빈곤

표 3. 시카고 커뮤니티 중 폭염 관련 사망률이 높은 지역

커뮤니티 지역	10만 명당 폭염 관련 사망자	흑인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60~1990년 인구 유출 비율	1994~1995년 총 폭력범죄 순위 (77커뮤니티 지역)
풀러파크	92	99	19	64	1
우드론	73	96	18	66	8
아처하이츠	54	0	21	13	56
그레이터그랜드 크로싱	52	99	18	39	15
워싱턴파크	51	99	11	56	2
그랜드블러바드	47	99	14	55	3
매킨리파크	45	0	13	21	46
노스론데일	40	96	9	62	18
채텀	35	99	19	16	30
켄우드	33	77	15	56	31
앵글우드	33	99	11	50	13
웨스트타운	32	10	9	37	38
브라이턴파크	31	0	15	15	50
번사이드	30	98	6	0	21
니어사우스 사이드	29	94	13	34	5
시카고	7	39	12	22	-

일리노이 보건부(1997), 시카고 통계백서 컨소시엄(1995), 시카고시 보건부(1996) 등에서 찾아낸 521건의 사망자 자료에 근거했다.

노스론데일 vs. 리틀 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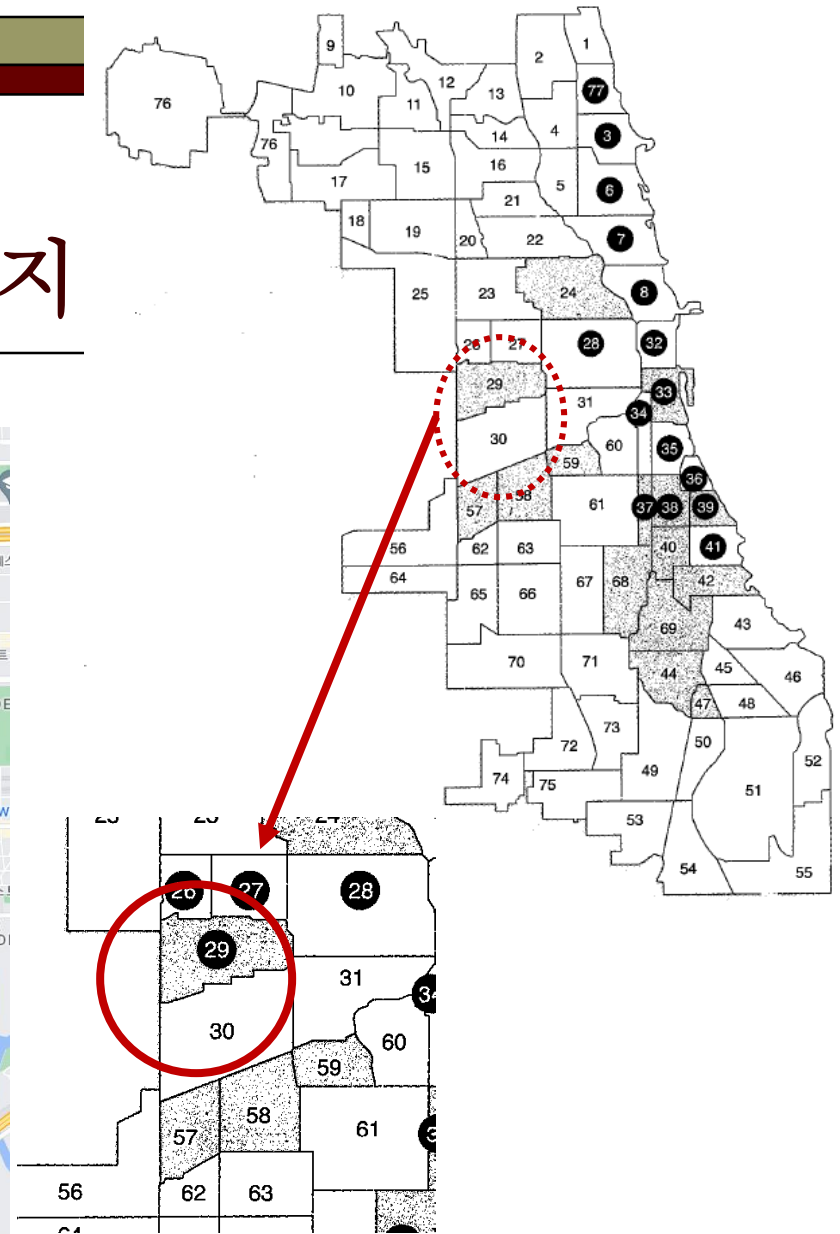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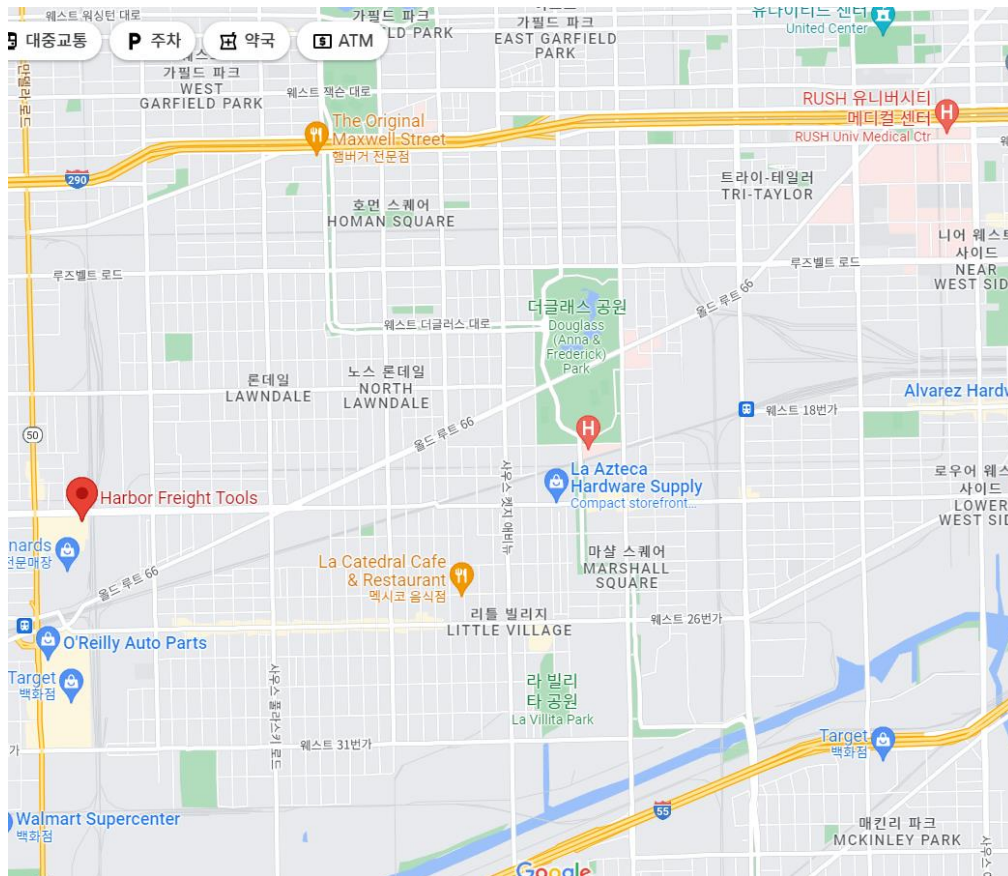


표 4. 노스론데일과 사우스론데일의 특징

조건	노스론데일	사우스론데일	시카고
빈곤층 노인	26%	22%	16%
빈곤선 2배 이하의 노인	71%	62%	41%
빈곤층	44%	22%	18%
65세 이상 인구수	4029	3965	33만4046
독거노인	956	1256	10만6792
65세 이상 인구 비율	8.5%	4.0%	12%
독거노인 인구 비율	24%	31%	32%
'소수 인종' 인구 비율	99% (96% 흑인)	94% (85% 라틴계)	58%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19	3	521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40/10만	4/10만	7/10만

어느 지역이 안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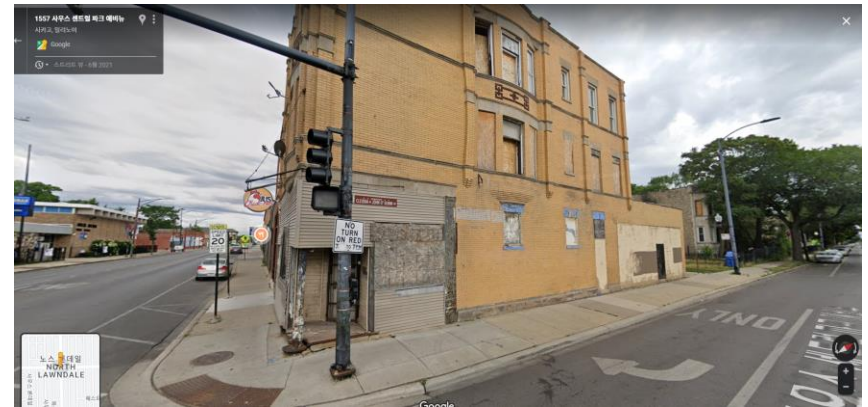


표 5. 1994~1995년, 10구역과 11구역의 총 폭력범죄 보고 건수

폭력범죄	11구역	10구역	시카고
건수	4714	2973	21만8894
희생자 비율	10/10만	4/10만	8/10만
순위 (77개 커뮤니티 지역 중)	18	59	-

출처: 시카고 시(1996). 11구역은 노스론데일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10구역은 리틀빌리지와 약간의 노스론데일 지역을 포함한다.

폭염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 어디일까? 그 이유는



노스론데일



노스론데일에서는 버려진 건물과 공터, 수익성 하락, 폭력범죄, 낙후된 기반시설, 낮은 인구밀도, 가족의 분산 등 위험한 환경 때문에 공공생활과 지역 지원 시스템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노령층 주민들은 특히 고립에 취약해졌다.

노스론데일 - 거리와 공터



리틀빌리지



리틀빌리지에서는 변화한 거리와 왕성한 상업활동, 밀집된 주거지역,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덕분에 사회적 접촉과 단체활동, 공공활동의 참여가 늘어났고, 근처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

노스론데일 인구변화

표 6. 노스론데일의 인구, 1950~1990년

연도	인구(명)	인구 증감(%)	백인 인구(%)	흑인 인구(%)
1950	10만489	-	87	13
1960	12만4937	+24	9	91
1970	9만4772	-24	3	96
1980	6만1523	-35	2	97
1990	4만7296	-23	2	96

- 1939년 81%가 세입자

Hawthorne Plant



노스론데일 – 기반 시설의 붕괴

노스론데일의 운명은 시카고 공업이 1단계 쇠퇴기에 접어들어 노스론데일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바뀌어갔다. 한때 1만4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인터내셔널하베스트는 1960년대 말 이 지역을 떠났다. 시어스로버앤컴퍼니는 1974년 호먼 애비뉴에 있던 오리지널 시어스타워(그림 26)의 문을 닫고 본사와 소속 직원 약 7000명을 론데일에서 루프로 옮겼다. 그대로 남겨둔 카탈로그 유통센터는 1988년 이전할 때까지 약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웨스턴일렉트릭은 점차 회사의 시설을 론데일 외부로 이전시키며 고용을 제한했고, 그때까지 4만3000명

을 고용했던 호손 공장을 1984년 영구 폐쇄했다. 1970년까지 1950년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기업의 75퍼센트가 사라졌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사이에는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이 여파는 다른 부문의 노동 시장에도 확산되어 지역 은행, 소규모 사업체, 식료품점, 음식점, 오락시설 등 지역 경제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이들 2차 상업경제의 손실로 지역 경제가 더욱 수축되어 일자리뿐 아니라 재화, 자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사라졌다. 론데일 주민들은 일할 곳은 물론 갈 곳까지 없었다.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래 거주한 한 주민이 말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노스론데일 – 기반 시설의 붕괴

1990년대 초 사이에는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이 여파는 다른 부문의 노동 시장에도 확산되어 지역 은행, 소규모 사업체, 식료품점, 음식점, 오락시설 등 지역 경제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이들 2차 상업경제의 손실로 지역 경제가 더욱 수축되어 일자리뿐 아니라 재화, 자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사라졌다. 론데일 주민들은 일할 곳은 물론 갈 곳까지 잃었다.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래 거주한 한 주민이 말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공동생활 기반의 붕괴

제인 제이컵스가 주장한 것처럼, 상점을 비롯한 공공장소가 지역의 인도를 따라 충분히 늘어서 있는 것은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통한 공공 안전을 확립하는 데 필수다. 상업시설은 주민과 보행자의 관심을 끌어 사람들을 모이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 혹은 그저 참견하길 좋아하거나 구경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게 한다. 제이컵스의 설명은 이어진다. “게다가 상점과 음식점에는 스스로 평화와 질서를 지키려는 상점주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깨진 유리창이나 강도를 싫어하죠. 손님이 불안에 떠는 것도요.” 그리하여 그들은 주변의 공공 영역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³ 거리와 인도는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기관”이다. 하지만 이 활기찬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폭력과 불안, 공포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다.



노스론테일의 노인들은 폭염 중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 더위를 피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람들(특히 노인들)의 이목을 끌어서 밖으로 나오게 할 만한 일이 없었다.